월요광장

학자 의병장 송사 기우만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1916년 음력 10월 28일, 71세의 노학자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고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조선이라는 500년의 유서 깊은 나라가 망해 버린 1910년으로부터 7년째이던 그해. 국권을 회복하여 왜놈들을 물리쳐 나라를 되찾고 공자·맹자의 유교 사상으로 뭉친 동방 예의의 나라를 다시 세워, 삼천리금수강산을 되살리자는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운명해야 했으니, 그 한을 어떻게 안고 가셨을 것인가.

송사에 대한 공식 기록인 '송사선생연보'(松沙先生年譜)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어떤 인물이었던가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대목이 있다. "선생의 장례에 글을 지어 제문(祭文)으로 바친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각자가 자신이 아는 바의 깊고 옅음에 따라 기술했다. 그러나 '대현(大賢)의 친손자로 가문의 전통을 훌륭하게 계승하고, 도학(道學)·문장(文章)·절의(節義)를 한 사람의 몸에 합성(合成)하여 당대의 우뚝 솟은 유종(儒宗)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다"라는 글이 있다.

왜 이런 인물 평가가 나왔나를 설명하면 간단하다. 대현의 손자라는 말부터 밝혀 보자. 조선 500 년 동안 퇴계·율곡과 같은 동등한 유학자를 꼽자면, 한말의 노사 기정진(奇正鎭)이 있다. 노사는 독창적인 성리학의 학설과 위정척사 이론의 최고봉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었다. 송사는 바로 그분의 친손자였으니 당연히 대현의 손자로서, 그 할아버지의 학문과 전통을 넉넉하게 계승한 학자였다는 것이다. 유학자로 '대현'(大賢)의 지위에 오르려면 의당 도학·문장·절의라는 유학의 가치를 실현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했다. 또한 그런 사람만이 향유하는 호칭이었으니, 송사야말로 이와 같은 모든 능력을 갖춘 대현의 한 분이었음이 분명하다.

송사는 헌종 2년인 1834년 음력 8월 17일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대유이고 대현인 할아버지 노사 선생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뛰어난 재주와 근면한 품성으로 학문에 돈독하여,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를 이을 학자로 온 나라에 명성이 높게 울려 퍼졌었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학문을 통째로 익혀 진사시에 합격했으며 참봉 벼슬에도 임명되었으나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온 힘을 기울였다. 34세 때 노사가 세상을 뜨고 노사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노사를 이은 학자로 옹립되어 전국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날로 변하고 조선은 국력이 기울면서 망국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해인 그의 나이 37세에 임오군란이 일어났고, 다음 다음해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나라의 운명에 불길한 징조만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49세에는 마침내 동학혁명이 일어나 세상이 바뀌는 국난에 들어갔다. 송사는 전통 유학자로 동학에는 찬성하지 않았으나 그때 큰 난리는 결국 청일전쟁을 유발하여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바로 이어서 을미년 민비 시해 사건이 발발하자, 반일정신이 치솟으며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다. 더구나 단발령까지 내려져 전통을 고수하던 송사는 바로 나라에 상소를 올려 모후를 시해한 원수들을 처단하기를 요구하고, '머리를 자르고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머리를 보존하고 죽겠다'(與其斷髮而存 寧保髮而亡)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나라는 외세에 농락당하며 망할 날만 기다리는 지경에 이르자, 송사는 1896년 정월 모든 고을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일으키기로 통보하고, 장성·광주·나주 등으로 의병을 이끌고 옮겨 다니면서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국왕의 해산 명령에 불복할 수 없어 의병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다.

송사의 호남 의병으로 궐기한 일은 한말 의병 운동의 효시로서 성재 기삼연, 녹천 고광순 등을 비롯한 의병대장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송사 자신이 저작한 '호남의사열전'(湖南義士列傳)에 나오는 김용구(金容球)·김봉규(金奉奎)·박경래(朴慶來)·김준(金準)·전수용(全垂鏞)·김영엽(金永曄)·김익중(金翼中) 등의 모든 의병장들에게 영향을 미쳐, 호남 의병 운동이 조선의 마지막 민족혼을 발산할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병하면 호남 의병이었으니, 송사는 바로 호남 의병의 발단을 제공한 학자 의병장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송사는 학자로서의 그 명성이 더 높다. 문인록에 기록된 제자는 무려 1238명이니 그들이 모두 일제에 항거한 척사위정파들이었다. 조선의 혼을 지킨 뿌리가 노사-송사로 이어지는 호남의 위정척사 정신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꿈꾸는 2040

노인과 아동 횡단보도 교통사고 근본 대책 없나

정 준 호
위민연구원 이사·법무법인 평우 대표 변호사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4.5%가 고령자라고 한다. 여기에 미취학 아동들을 포함시키면 그 심각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횡단보도 이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과 홍보에 의존한 '고령자와 아동들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줄이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어르신들의 경우 경로당을 방문해 해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어르신들의 경우 교육과 홍보의 효과가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어르신이 보행기에 의존한 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순간적으로 어르신이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 일시 정지선과 횡단보도 우선 멈춤의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다. 누구든 일부러 사고를 낼 일은 없겠지만 사고라는 것이 잠깐의 방심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어르신들의 행동과 젊은 사람들의 예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문화는 사람보다는 차량 중심, 심지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차량의 속도와 운행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문화와 환경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만으로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기대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더 시급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할 대책으로는 모든 초등학교와 어르신 계층이 많은 지역을 교통 안전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옐로우 카펫' 등을 의무화하여 운전자들에게 시각적 예방 조치를 주는 것이다. 또한 어르신 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통 안전 취약 지구에서의 속도 제한 역시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로 교통 법규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자동차는 이미 우리 삶의 필수품이다. 문명의 이기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다. 더구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대상이 어르신들이나 미취학 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인간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 가능성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못지않게 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의 강화, 교통 문화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 나아가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일이다.

흔히 광주를 '인권의 도시'라고 말한다. 인권의 도시란 인간의 개인적 조건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도시에 비해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삶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실효적으로 확인되는 도시여야 한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인권의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특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인권 도시로서 광주의 '인권 지수'를 높여 도시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는 '광주다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책의 하나로 교통 안전 취약 지구에 "어머니가 건너는 횡단보도입니다", "내 아이가 집으로 가는 횡단보도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기 고

끝나지 않은 촛불, 시대 교체

박 시 종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

4·19, 5·18, 6·10 등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항쟁들은 민주주의를 앞당겼지만 주체적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 반면 '촛불항쟁'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으로 귀결되면서 처음으로 성공한 항쟁이 됐다. '촛불 정부'라는 명명은 그에 합당한 조응이며,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정권 교체'가 촛불 항쟁의 정치적 결과라면, '시대 교체'는 촛불 정부의 역사적 과제다. '결과'는 국민과 정부가 공유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엇갈린다. 국정 지지율 하락은 여기서 비롯된다.

'과제'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즉 비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적폐 청산과 같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혁신과 같은 '내일'의 문제이다. '내일'의 문제에 관한 국정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과 토론이 왕성했어야 한다. 그러나 크게 부족한 편이다.

전선이 넓은 전장에서는 약한 곳이 있게 마련이다. 정권 교체 이후 정치 전선은 단단해졌다. 평창올림픽 당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서 '뜻밖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남북 문제도 보수 정권 10년 전의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문정인 교수 등의 역할이 컸다.

약한 고리라면 초기 탈원전 논쟁이었고, 점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등으로 쟁점이 확대되었다. 이른바 경제 전선이 고지전의 대상이 됐다. 경제 전선이 약한 이유는 기업, 노사 등 주체가 복잡하고, '사적 영역'이라는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우리', 경제는 '나'의 문제라는 프레임은 낡았다. IMF 경제 위기 때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성장과 분배가 좌우 이념의 상징처럼 치부되는 것도 철 지난 등식이다. 성장 없는 분배는 나락이고, 분배 없는 성장은 지옥이다. 혁신을 통한 성장, 분배를 통한 포용은 그런 배경의 담론이다. 그러나 미래 담론의 지배력이 미약하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정치적 경쟁 세력으로 자유한국당의 부활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국정 농단세력의 부활은 끔찍한 일이다. 탄핵 부정, '일베' 수준의 막말, 5·18 북한 개입설, 반민 특위 발언 등은 가히 '적폐의 부활'이라 할 만하다.

진흙탕은 흰옷과 검은 옷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마치 트럼프의 '반(反) 정치'처럼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나 극우적 선동, 말초적 정쟁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보수를 가장한 '좀비 보수'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는 것이다.

촛불이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의 민주적 고도화를 촉진할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에게는 실망스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보상받은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한 후과이기도 하다. 혁신 세력이 혁신을 중단하면 또 다른 기득권처럼 인식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시점이다.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국민의 자부심이듯 촛불 항쟁은 우리 국민의 큰 자부심이다. 항쟁의 경험을 공유한 시민의 대거 등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런 시민의 힘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촛불 정부의 소명이다.

항쟁이 끝나고, 정권 교체가 완성된 이후 시민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퇴각'이 아니라 '일상의 광장'을 열도록 섬세하게 배려했어야 한다. 비단 정권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시대 교체는 끝나지 않은 촛불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내일 세월호 5주기 아, 어찌 그날을 잊으랴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덧없는 꽃들이 피고 지기를 다섯 해. 내일 세월호 5주기를 맞는다. 5년 전 그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배가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교사를 비롯해 탑승객 등 304명은 영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어느덧 다섯 번째 맞게 되는 세월호의 봄.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참혹했던 기억은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전시와 공연 문화 행사도 줄줄이 이어진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과 광주청소년 촛불모임은 내일 추모문화제를 갖는다. '세월 5년, 우리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문화제는 세월호 리본 나눔, 팽목항 사진전, 세월호 특별수사단 서명 운동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5·18민주광장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는 이에 앞서 13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세월호 5주기 특별전'을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다룬 세 편의 영화 '생일'과 '봄이 가도' '눈꺼풀'이 스크린에 오른다. 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안산 4·16기억전시관과 함께 공동기획전을 16일부터 27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 연다. '공간에서 시간으로'라는 타이틀로 열릴 이번 전시에는 5년 동안 사라져 간 전국의 세월호 추모 공간을 다큐멘터리 5점과 사진 20여 점으로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는 수백여 명의 꽃다운 목숨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민들이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고 5년 전의 다짐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진상 규명은 물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까지,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기며 다짐했던 그 마음을 떠올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 가야 하겠다.

전염성 강한 옴 확산 쉬쉬 넘어갈 일 아니다

광주 지역 노인 요양 병원 및 시설 등을 중심으로 후진국형 피부 감염 질환인 옴이 확산하고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옴이 집단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물론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과 요양 보호사에게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6년 2625명, 2017년 2623명으로 매년 2000명이 넘고 있다. 광주 지역 30여 곳의 피부과에 들르는 옴 환자도 한 달 평균 100여 명이 넘는다. 특히 옴으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 대부분은 요양 병원 간병인 및 요양 보호사 나 환자등이다.

환자의 증가는 광주 지역에 등록된 요양 병원이 64곳에 이를 만큼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격 할인 등으로 환자 관리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 시설이 열악한 곳도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러 병원이나 시설을 오가는 간병인이나 요양 보호사들이 감염되면서 다른 시설로 전염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 병원이나 시설은 옴 환자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가려움증 등으로 장기간 큰 고통을 겪어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해 감염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한다.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들도 옴이 법정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옴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접촉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등에게 옮겨질 경우 집단 발병의 우려도 크다.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발생 때 보건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홍보하고 감염 경로 파악은 물론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관리·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바람(風)

차범석(1924~2006)의 '산불'은 6·25 전쟁의 비극을 그린 사실주의 희곡이다. 1963년 현대문학에 발표된 작품으로 민족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객관적 시각에서 조명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산골 마을에 빨치산에서 도망친 규복이라는 청년이 숨어든다.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우연하게도 북한군이 되었다가 탈출에 성공했다.

전쟁으로 과부들만 남은 산골 마을은 수시로 인민군과 국군 치하가 바뀌면서 대립이 지속된다. 규복은 점례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대밭에서 숨어 지내는데, 사월이라는 젊은 여인이 이를 알게 된다. 얼마 후 사월이가 규복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 사람은 위험한 관계에 직면한다. 뒤이어 운명의 장난처럼 공비 토벌 작전이 개시된다. 대밭에 숨어 있던 규복은 국군이 지른 불을 피해 도망가다 총살을 당하고, 사월이는 양잿물을 마신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7140㎡) 면적의 735배에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1996년 고성 산불, 2005년 양양 산불처럼 강원도 산불은 봄철이면 늘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영서 지방에서 영동 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인 '양간지풍'(讓干之風)에서 원인을 찾는다. 태백산맥 동쪽 양양과 고성(간성)으로 불어오는 양간지풍은 고온건조한 데다 풍속이 빠르다.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으로 형성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을 때 에너지를 동반하는데 '불을 몰고 온다'하여 '화풍'(火風)으로도 불린다. 이번 화재도 거센 바람으로 불씨가 번진, 이른바 '비화'(飛火) 탓에 피해가 컸다.

화재 원인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라는 발언을 해 비난에 휩싸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離席)을 막아 논란이 됐다.

다시 희곡 '산불'을 언급하자면, 불타는 대밭과 마을은 이데올로기 전쟁에 희생당한 민초들을 상징한다. 국가 재난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민심의 불씨가 '들불'로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바람(風)은 무섭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